

뉴스 라운드업

- 이란·미국 유조선 상호 공격에 확전 최고조, 브렌트유 배럴당 100 달러 첫 돌파
- IAEA, 이란 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결의안 20 년 만에 통과...외교적 긴장도 고조
- 뉴욕·유럽 증시 동반 하락, S&P500 -0.48%·나스닥 -0.64%·STOXX600 -1.41%로 한달래 최저
- 미국 10 년물 금리 4.845%로 2023 년 11 월래 최고치, 독일 국채금리도 동반 급등

이란-미국 유조선 공방에 유가 100 달러 돌파, 국채금리·안전자산 동반 상승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선박을 공격하는 최대 규모 충돌이 벌어지며 6 개월째 이어진 중동 분쟁이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 선박 2 척과 유조선 8 척 등 총 10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군은 이란 유조선 5 척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두바이 인근에서는 석유제품 운반 유조선 승선원이 사망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요르단이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20 년 만에 처음 통과시키면서 군사적 충돌에 외교적 긴장까지 겹쳤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7 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고, WTI 도 96.05 달러(+3.25%)로 급등했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이어지며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을 줬다. 최근 이어져 온 글로벌 위험선호 강세 흐름과는 달리, 이날만큼은 지정학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뉴욕·유럽 증시가 일제히 조정받는 리스크오프 장세가 나타났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S&P500 -0.48%, 나스닥 -0.64%로 내렸고, 유럽 STOXX600 은 -1.41%로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는 4.845%(+5.3bp)로 2023 년 11 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고, 목요일(오늘)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회의를 앞두고 독일 10 년물도 3.452%(+7.9bp)로 함께 뛰었다. 시장은 이미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과 2027 년 3.1%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재무부가 진행한 390 억달러 규모 10 년물 입찰에서 2019 년 이후 가장 강한 수요가 확인됐음에도, 유가발 인플레이 우려와 목요일 예정된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금리 상승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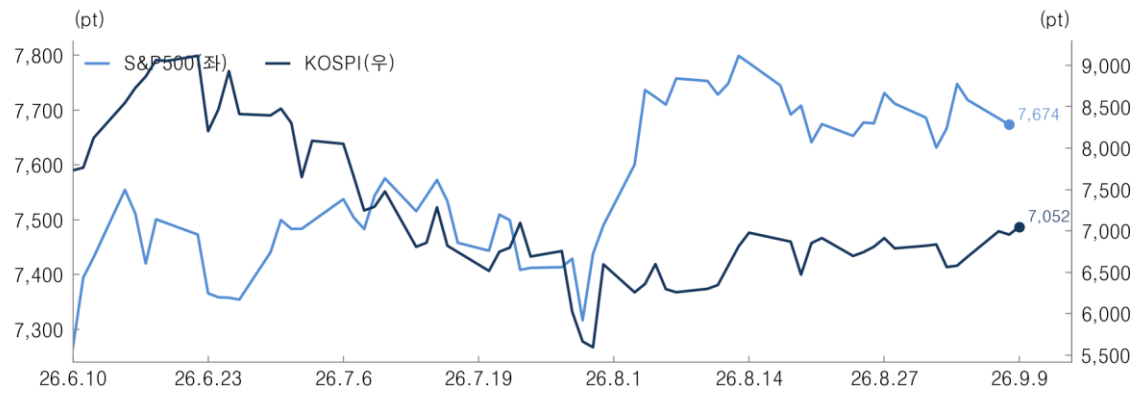
위험 회피 심리 속에 안전자산으로는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 달러인덱스는 98.77(-0.06%)로 소폭 밀렸고, 엔화는 다음 주 일본은행(BOJ)의 0.25%포인트 인상 기대와 맞물려 강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값은 4,401.13 달러(+1.07%)로 오르며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패턴을 재확인했고, VIX 는 16.47(+4.84%)로 상승했으나 절대 수준 자체는 낮아 극단적 공포 국면으로 보기는 이르다. 다만 코스피·닛케이·항셱·CSI300 등 아시아 주요 지수는 이번 확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전일 오후 장중 가격으로 이미 마감된 상태라 이번 충돌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반응은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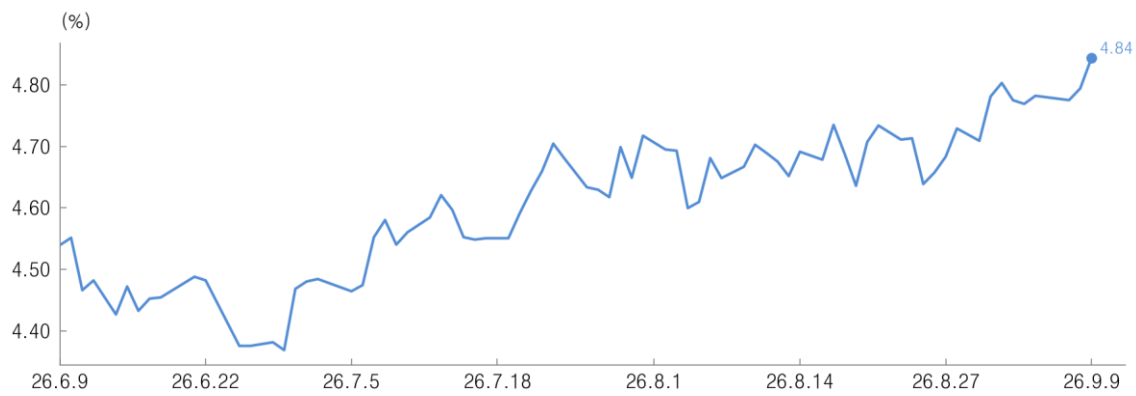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36.36	-0.48%	9/9 종가
	나스닥	26,253.33	-0.64%	9/9 종가
	STOXX 600	640.42	-1.41%	9/9 종가
	닛케이 225	65,142.71	-0.19%	9/9 종가
	CSI 300	4,572.60	+0.30%	9/9 종가
	KOSPI	7,051.64	+1.40%	9/9 종가
	항셍	25,274.96	-0.17%	9/9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77	-0.06%	9/9 종가
	달러/엔	153.54	+0.03%	9/10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10 종가
	달러/원	1,339.66	-0.02%	9/9 종가
	달러/위안	6.71	-0.03%	9/9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845%	+5.3bp	9/9 종가
	미국 2 년	4.436%	+3.6bp	9/9 종가
	일본 10 년	2.885%	-2.4bp	9/9 종가
	독일 10 년	3.452%	+7.9bp	9/9 종가
	한국 10 년	4.390%	-	9/9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7bp	-1.0bp	9/8 종가
원자재	WTI	96.05	+3.25%	9/9 종가
	금	4,401.13	+1.07%	9/9 종가
	구리	6.89	+0.95%	9/9 종가
변동성	VIX	16.47	+4.84%	9/9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8 건 HIGH	• 중동 긴장 심화로 브렌트유 7 월 이후 처음 \$100/배럴 돌파, 금리·환율 동시 파급 ↳ 미국-이란 양국이 걸프 지역 공격을 상호 주장하며 지정학 리스크 확대 ↳ 브렌트유 \$100.27/배럴로 상승(+2.4%, 일중 최고 \$100.95), 에너지 공급 리스크 상향으로 인플레이 우려 확대 → 금리 인상 기대 상향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4.837%까지 상승(2023 년 11 월 이후 최고점) • 일본은행 매파적 기조 +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예상으로 엔화·유로 강세, 엔화 7 개월 고점 ↳ 일본은행 금리 인상 기대 + 엔화 약세 베팅(숏) 포지션 청산 동시 작용으로 기술적 반등 강화 ↳ 유럽중앙은행은 목요일(11 일) 금리 인상 결정 예상으로 유로 상승 • 금값 상승, 달러 약세 속 미국 인플레이 지표 발표 대기 ↳ 현물금 \$4,417.19/온스로 상승(+1.5%), 목요일 생산자물가(PPI) · 금요일 소비자물가(CPI) 발표 앞두고 시장은 9 월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60%로 반영 ↳ 백금 연간 첫 흑자 전망(2022 년 이후) • 엔화 급등으로 저금리 차입 통화의 역할 변동, 캐리 트레이드 재편 가능성 ↳ 외환 트레이더들, 엔화 급등에 따른 향후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통화 차입 후 고수익 자산 매수 거래) 자금 조달 통화 변경 논의 중
미국 뉴스 45 건 HIGH	• 유가 배럴당 \$100 진입하며 주가 하락,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 쌍방 공격 심화 배경 ↳ 브렌트유가 7 월 말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 을 넘어섰으며, 심리적 저항선 돌파로 공급 차질 우려 확대 ↳ 미국-이스라엘 대이란 전쟁(7 개월 지속) 심화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쌍방 공격 악화 ↳ 미국 S&P 500 -0.45%, 나스닥 -0.62%, 캐나다 TSX -0.45%, 에너지 주만 상대적 강세 • 달러 약세 심화하여 7 개월 저점 근처 보합, 엔화 월 4% 상승 ↳ 달러-엔 환율이 7 개월 저점 인근에서 보합, 유가 급등으로 광범위한 위험자산 회피 심화 속 안전 통화 엔화 선호 ↳ 엔화는 금월 이미 4% 상승하며 대부분 통화 대비 강세, 다음주 BOJ(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25bp) 가능성에 대한 포지셔닝도 진행 • 10 년물 미국채 수익률, 2023 년 11 월 이후 최고 수준 (4.83~4.85%) — 정부 채권 매입 규모 제한적으로 평가 ↳ 미 재무부의 \$60 억 규모 채권 매입 계획이 시장 기대치(약 \$100 억)에 못 미쳐 오히려 수익률 상승 유도 ↳ 미 재무부 10 년물 채권 경매에서 4.834% 수익률로 2019 년 이후 최고 수요 기록, 선물 시장은 연준 9 월 인상 가능성을 약 60% 평가 • 금, 약달러·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로 1% 이상 상승 (\$4,414/온스) ↳ 현물 금이 1.4% 상승해 \$4,414/온스로 마감, 달러 약세와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확대가 안전자산 수요 확장 ↳ 금주 중 미국 생산자물가(PPI) · 소비자물가(CPI) 발표 대기 심리가 매수 추동, 백금도 2022 년

권역	요약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 예상 • 미국 전력 수요 2026~27 년 역대 고점 경신 전망, AI 데이터센터·전기화 수요 급증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6~27 년 전력 소비가 기록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AI 데이터센터·전기자동차 충전 등 에너지 전기화 수요 급증, 2027 년 재생에너지 비중 27%, 석탄 비중 14%로의 구조 전환 예상
유럽 뉴스 21 건 HIGH	• ECB 목요일 인상 확정, 시장은 연내 추가 인상까지 선반영 ↳ 유로존 정부채 수익률 다년 고점 경신 — 독일 국채(Bund) 15 년 최고, 프랑스 국채(OAT) 18 년 최고 ↳ 시장참가자들, 2026 년 말까지 2 회 추가 인상, 2027 년 말 기준금리 3.1% 수준 선반영 ↳ ECB 관계자(Schnabel)는 시장의 통화정책 반응함수 이해도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되, 9 월 이후 추가 긴축 신호 부재 • 유럽 추가 급락, 유가 \$100 재돌파로 인플레이 우려 재점화 ↳ 범유럽 주가지수(STOXX 600) -1.4%로 하락하며 7 월 말 이후 최저인 640.41 포인트 기록 ↳ 미국-이란 갈등 고조(양국 모두 선박 공격)로 브렌트유가가 \$100/배럴 재돌파(7 월 24 일 이후 처음) ↳ 영국 FTSE 100 -1.31%(10,670), FTSE 250 -0.99%(각각 1 개월 이상 최저), 영국 2 년물 gilt 수익률 4.72%(2023 년 11 월 이후 최고, 당일 +10bp), 5 년물 4.80% • EU 러시아 에너지 탈피 지연, 겨울 가스 비축 이례적 저수준 경고 ↳ 유럽감사원, EU 가 러시아 석유·가스 완전 대체·재생에너지 확대·송전망 인프라 강화에 투자 부족 지적 ↳ 회원국 간 에너지 흐름 개선 및 에너지 자립도 확대 과제 산적, 겨울 진입을 앞두고 가스 비축이 평년 이하 수준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 가중 • 유로존 채권 수익률 광범위 상승, 포르투갈 경매 악화 ↳ 포르투갈 국채 경매: 9 년물 3.632%(6 월 3.342% 대비 +29bp), 8 년물 3.559%(3 월 3.009% 대비 +55bp), 4 년물 3.122%(5 월 2.834% 대비 +29bp)로 모두 악화 ↳ 독일 채권청, '유럽 국채에서 일본으로의 자본 이동 증거는 제한적이며 독일 시장 기능은 양호하다'고 평가 ↳ 수익률 상승 배경: 유가 고공행진(인플레이 우려)·AI 관련 차입 증가·주요국 고채무 수준 인식 • EU 재정 긴축 신경전, 독일 '수백억 유로 삭감' 촉구 ↳ 독일 총리 Merz, 2028~2034 년 EU 장기예산(약 2 조 유로) 제안에 '수백억 유로 삭감' 요구 ↳ 독일·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은 '전 분야 균형 삭감' 주장, 프랑스는 2027 예산에서 대형기업 특별부담금 완전 폐지 대신 단계적 경감 추진 중(하원 다수당 부채로 통과 난항 예상) • 포르투갈·독일, 에너지 안보 강화 조치 추진 ↳ 포르투갈, 전력·가스 그리드사 REN 13.7% 지분 인수(12 년 만에 복귀, 중국 State Grid 25% 최대주주 보유) ↳ 독일, 11GW 가스·발전 용량 입찰 실시 중 — 첫 4.5GW 입찰이 초과 청약되어 11 월 낙찰자 발표 예정

권역	요약
	↳ 배경: 미국-이란 갈등 악화 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에너지 독립성 강화
일본 뉴스 6 건 HIGH	• 달러 7 개월 최저 진입 — 엔화 월중 4% 상승, BOJ 금리인상 기대·유가 강세 ↳ 전일(9월 9일) USD/JPY 가 7 개월 최저 수준까지 하락, 9월 누적 엔화 상승률 4% ↳ BOJ 18일 금리인상(25 베이스포인트, 광범위 시장 기대)에 따른 선제적 엔 강세 포지셔닝 가속 ↳ 브렌트유 전일 \$100/배럴 돌파(5월 이후 첫), 예멘 후티반군의 사우디 공습 등 중동 분쟁 심화로 달러 약세 추가 압력 • BOJ 18일 정책결정을 '진정한 변동성 리스크'로 평가 — 옵션 헤징 비용 급등 ↳ USD/JPY 1 개월 내재변동성 일주일간 7.15 → 11.6 으로 급등, 중반 159대에서의 급낙 반영 ↳ 18일 야간 선물 만기 시 내재변동성 현재 16.0에서 21.0 까지 상승 예상 — 스트래들 손익분기점 폭이 103 엔 포인트에서 135 엔 포인트로 확대될 전망 ↳ 리스크 역전 1.75에서 2.75로 악화 — 하방 보호 옵션 비용 급증으로 역 노크아웃(RKO) 등 대체상품으로의 헤지 선호 • 엔화 급등으로 전통적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 악화 — 저금리 통화 대체 검토 확산 ↳ 역사적으로 엔화(저금리)를 차입해 고수익 통화·자산으로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외환 시장의 주요 수익 구조 ↳ 엔화 4%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 거래자들 사이에서 대체 저금리 통화·자산 후보군 검토 본격화 ↳ 정책금리·채권수익률·변동성·향후 금리 기대 등이 새로운 자금 조달 통화·자산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
인도 뉴스 7 건 HIGH	• 인도 금융시장 동시 약세 — 유가 급등에 물가·금리 우려 확산 ↳ 2036년물 정부채권 수익률 6.9568% 마감, 전일 대비 1.5 포인트 상승 ↳ 루피화 1 달러당 95 선 돌파(95.1050 마감), 인도중앙은행(RBI)의 현물 달러 판매·통화스왑(9월·10월물)을 통한 유동성 흡수 개입 ↳ 주가지수 3 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7월 말 이후 3 개월 최저 기록 • 유가 공급 리스크에 인도,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 총리실 자문관, 중동 분쟁의 원유 공급 불안정을 강조하며 바이오연료 수급 강화 필요성 제시 • 인도 부정거래수사기관, 샤오미 조사 권고 — 외국인투자법 위반 의혹 ↳ 자금 이동의 부정 소지 및 외국인투자법(FDI) 규정 미준수 의혹으로 '상세 조사' 권고 ↳ 샤오미의 인도 자산 동결·세금 고지 등 행정조치 진행 중
멕시코 뉴스 8 건 HIGH	• 유가 100 달러 돌파에 라틴 아메리카 주식·통화 동반 하락 ↳ 9월 9일 MSCI 라틴 아메리카 지수 -0.9%, 지역 외환 지수 -0.3% 하락 ↳ 브렌트유 배럴당 100 달러 돌파로 글로벌 위험회피 심화, 주간 후반 미국 주요 경제지표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 포지션 조정 • 멕시코 8월 연율 인플레이션 3.26%로 5 개월 만에 재가속 ↳ 8월 연율 3.26%, 7월 3.12%에서 상향했으나 로이터 설문 예상(3.3%)에는 소폭 하회 ↳ 전월대비 기준 6월 +0.20% (5월 +0.03%), 특히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세 지속 ↳ 근원 인플레이션 완화세와 달리 전체 물가 재가속은 중앙은행의 보수적 금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권역	요약
	신호 • 멕시코 재정부, 2026 년 기준 경제성장을 1.4% 전망
EM 기타 뉴스 27 건 HIGH	• 이란-미국, 호르무즈 해협 탱커 공격 전쟁 본격화 — 브렌트유 \$100 돌파 ↳ 이란 혁명수비군, 미국 선박 2 척 포함한 상선 10 척 공격 후 미국이 유조선 5 척 격침(어제) — 6 개월 전 개전 이후 해운 공격 규모 최대 ↳ 브렌트유 배럴당 \$100 돌파(7 월 이후 처음), 호르무즈 지역 벤치마크유(오만·두바이) 프리미엄 배럴당 \$30 기록(3 월 이후 최고) — 중동 공급 차질 우려가 시장에 반영 •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이란 핵 의무 위반으로 UN 안보리 회부 결의 채택(20 년 만) ↳ 35 개국 이사회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로 통과(어제 밤), 지난해 6 월 핵 비확산 의무 위반 적발 후 이스라엘·미국의 핵시설 공격으로 이어진 사건의 공식 후속 조치 ↳ 폭격된 핵시설 사이트 접근 협상에서 신규 교착 상황 발생 • 후티 무장세력, 사우디 석유시설 공급 강화, 파키스탄·사우디는 이란에 갈등 자체 메시지 전달 ↳ 후티, 사우디 함무드 프린스 설마트 공군기지 및 유전시설 드론 공격(어제), 이란은 '후티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소식통은 '이란이 사우디 공격 강화를 촉구했다'고 보도 ↳ 파키스탄 정부, 사우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중재 시도, 사우디·파키스탄·터키 방위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로 산업 급락·인플레 가속, 평화 협상 재개 신호 ↳ 철강 생산 1~8 월 누적 430 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8 월 -57.3% 급락, 점령지역 대형 제철소 파괴가 주요인, 어제 공표) ↳ 젤렌스키 대통령, 노르웨이 국왕 장례식 참석 차 모스크바 출발 시 드론 피격 위험 노출(어제), 트럼프 특사 지난주말 평화협상 재개 모색 중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곧 회담 재개 기대' 발언 ↳ 우크라이나 소비자물가 8.1% 상승(7 월 7.7%에서 가속 추세), 중앙은행 '2026 년 말 약 10% 목표' 제시 • 동유럽 중앙은행, 상품가격·에너지비 폭등 시 금리 현상유지 — 인플레 상향 리스크 적시 ↳ 폴란드 기준금리 3.75% 유지(어제), 체코도 현상유지 선언, 에너지비·상품가격 상승이 인플레 상향 압력으로 작용 — 폴란드 8 월 소비자물가 3.4%(시장 예상 상회) ↳ 헝가리만 기준금리 25 베이스포인트 인하해 5.5% 기록(3 연속 인하), 폴란드·체코 중앙은행 '향후 데이터 의존적' 입장 • 신흥국 재정악화·채무·환율 압박 심화 — 러시아 적자 급증, 세네갈·앙골라 구조조정 ↳ 러시아 1~8 월 예산 적자 5.8 조 루블(약 680 억 달러, GDP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어제), 크렘린궁 '증세 계획 없음' 선언했으나 적자 축소 미약 ↳ 세네갈 국채 보유자 그룹, 법무법인 화이트 케이스를 법률 자문으로 선임(어제) — 채무 재조정 본격화, IMF, 앙골라에 '재정구조조정·신중한 통화정책·환율 유연성' 권고 ↳ 터키 재무장관, '자유변동환율제 복귀는 바람직하나 인플레 추가 하락이 선행조건'(어제) — 현재 강환율 유지로 인플레 억제 중
중국 뉴스 1 건	• 중국 8 월 생산자·소비자물가 동반 상승, 에너지 비용 인상이 주도 ↳ 유가(브렌트유) \$100 돌파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림

권역	요약
브라질 뉴스 2 건	• 브라질 정부, 연료 보조금 66 억 레알(13 억 달러) 추가 배정 ↳ 어제(09/09)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휘발유 보조금 만료 직전 즉시 발효 ↳ 디젤(도로용) 56 억 레알, 석유계 연료 생산·수입 보조금 약 10 억 레알로 구성 ↳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의 일환 • 브라질, 중국과 탄소배출권 양자협정 11 월 체결 목표 ↳ 차주 중국 고위급 방문 예정, 중국의 탄소크레딧 구매 참여 가능성 평가 ↳ 산업계 요청에 부응, 국제이전감축수단(ITMO) 수출 조기 시작 검토 및 제 31 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1, 11 월) 동시 발표 추진 ↳ 브라질·중국·유럽연합(EU) 3 자가 탄소시장 연계 방안 협의 중
남미 기타 뉴스 8 건	• 칠레 중앙은행, 2026 년 GDP 성장 전망 0.25~0.75%로 대폭 낮춤 ↳ 6 월 1.0~1.75% 예상에서 재차 하향, 국내 지출 약화·악천후·광산 산출 감소가 배경 ↳ 국내 수요 증가율도 2.2%에서 1.1%로 낮춤 ↳ 인플레이션은 12 월 4.3%, 2027 년 말 2.8%로 점진적 하향 예상, 2027 년 2 분기 3% 목표 수렴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